

보도시점 2025. 3.19.(수) 08:00 배포 2025. 3.19.(수) 08:00

## 주영한국문화원 국제 무대속 한국문학의 새로운 미래 열다 런던에서 한국문학 특별전 <베스트셀러> 성황리에 마무리

- 런던대학 소아스 한국학 연구소, <베스트셀러>전을 주제로 대담
- 한강 노벨상 수상 조명 및 현지 맞춤형 문학 행사로 한국문학 확산 도모

주영한국문화원(원장 선승혜, 이하 문화원)은 지난 11월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의 협업으로 주최한 한국문학 특별전 <베스트셀러 (24.11.28-25.03.21)> (Bestselling & Beloved: Korean Literary Treasures)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런던에서 한국문학의 흐름을 소개한 최초의 전시로서, 4개월간 다수의 연계 행사를 통해 영국시민에게 한국문학을 소개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 이후, 한국문학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선승혜 주영한국문화원장은 “영국에서 처음으로 한국문학을 주제로 한 특별전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많은 기관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영국에서 치열한 삶을 문학으로 승화시킨 한국의 문학가들과 그 문학작품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한자리에 만나는 순간을 아름다운 구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 미학은 한 줄의 글 속에, 한권의 책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1월 16일 주영한국문화원의 주최로 열린 <베스트셀러>전 특별 강연 ‘대중적 텍스트와 정통적 텍스트 사이에서’ 이어, 2월 28일에는 영국의 소아스 런던 대학(SOAS University of London)의 그레이스 고(Grace Koh) 교수의 초청으

로 <베스트셀러>를 개최한 경험을 공유하는 대담형 세미나에서 선승혜 문화원장과 차재민 큐레이터가 발표했다.

이번 연계행사를 진행한 소아스 런던 대학교 내 한국학 연구소(SOAS Centre of Korean Studies)는 1987년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설립되어 영국 내 한국학 연구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을 초청하여 학제 간 교류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를 주최하여 한국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주영한국문화원은 작년 그레이스고 교수와 한국문학을 주제로 ‘한국 문화, 지금 (Korea Culture, Now)’ 대담을 온라인에 공개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후 특별전 <베스트셀러>를 개최하고 특별 강연 및 소아스 런던대 세미나로 의 기투합을 하며 한국문학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했다.

대담의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문학전시를 기획하게 된 서사적 배경과 전시의 작품 선정 및 구성과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였다.

선승혜 문화원장은 한국 문학의 미학과 국제적 확산에 대한 전망을 논의하였다. 한국문학 전시를 기획하게 된 비전과 전시의 전체적인 서사 구조와 기획 방향을 말했다. 시(詩)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다루며, 한국 문학의 미학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차재민 전시 담당자는 미술 큐레이터로서 문학과 시각 예술의 미학적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였다. 큐레이션 과정에 대해 전시의 주제, 텍스트 선정, 공간 배치와 자료들은 확보한 방법과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보람을 느낀 순간을 나누었다.

주영한국문화원은 두 건의 학술 세미나 외에도 <베스트셀러>전 특별 큐레이터 투어를 통해 한국문학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넓혀오고 있다. 총 4회에 걸쳐 진행한 큐레이터 토크는 영국의 현지 학생, 문학 관련인 등이 다수 참석하여 긍정적인 호응을 보여주었다. 특히 문화원 개관 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관객들을 위해 전시 관람 및 투어를 저녁 및 주말에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받았다.

3월 11일 진행한 큐레이터 투어에 참석한 관람객은 “한국 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특히 전시의 구성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참석 소감을 밝혔다. 또한 투어 이후 진행된 자유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한국문학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나 테마가 있는지, 특히 한국문학이 서구의 흐름을 어떻게 수용해 왔는지”와 같이 구체적인 질의들이 오가며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방문객이 직접 한국 도서를 추천하고 전시할 수도 있어 관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도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번 전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문화원은 책갈피 만들기 행사, 전시 방문 리뷰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주영한국문화원은 올해 3월부터 매달 ‘한글로 책 읽는 날’을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했고, 한국의 삶을 투영하는 다양한 한국문학을 바탕으로 저자와 번역가들과 직접 만나는 ‘이음 - 북토크’ 문학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 붙임 1. 연계 행사 포스터 및 행사 사진

담당 부서	주영국한국문화원	책임자	원장	선승혜 (+44)020 7004 2600
		담당자	실무관	차재민 (+44)020 7004 2606



□ 전시 개요

- (전시명) 베스트셀러 (국문)  
Bestselling and Beloved: Korean Literary Treasures (영문)
- (주최) 주영한국문화원
- (협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문학번역원, 국가유산청 및 국가유산진흥원, 국립한글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연세대학교 윤동주기념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영국 도서관, 소아스 유니버시티 오브 아트, 포일즈서점
- (일시) 2024년 11월 28일 - 2025년 3월 21일
- (연계행사) 2025년 1월 16일, 소아스 런던대학교 협력
- (장소) 주영한국문화원

